

# 광주 전공의 총파업 참가 환자불편 현실화

### 전남대병원 등 90% 참가 교수진 주야 근무 피로도 ↑ 진료 공백·수술실 50% 가동 장기화뎀 의료대란 불가피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계 총파업(26~28일)에 참가하면서 환자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전공의들은 앞으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환자는 물론 수술환자 등에 대한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본원·화순·빛고을 3개병원) 314명, 조선대 142명, 기독병원 46명, 광주보훈병원 27명 등 대학 및 종합병원의 전공의 90% 이상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는 광주 6.2%, 전남 4.0%가 파업에 동참해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사실상 교수진이 주야간 근무를 하는 등 피로도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도 지연되거나 미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수술실을 50% 밖에 가동하지 못해, 양 대학병원에서만 하루 평균 100

명의 환자들이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평소와 비해 한 달 이상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 환자 진료도 초진이나 경미한 진료 또는 보조 업무를 맡는 전공의 부재 탓에 평소의 70%를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 양 대학병원에서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최소 15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 환자들은 진료가 미뤄지면서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경우 입원 환자에 대한 밀착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나 아주 경

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권유, 입원 환자를 300명 가량 감축한 상태이다. 응급 관련학과는 한 교수는 “교통사고 환자나 임신부 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응급환자 위주의 수술이나 진료에 초점을 맞춘 탓에 일반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교수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진료나 수술의 질마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어느 시기보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전공의들이 신뢰를 갖고 대화를 재개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대표 특산물 무등산 수박 본격 출하

광주지역 대표 특산물 ‘무등산 수박’ (일명 푸랭이) 판매가 시작했다. <사진> 3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무등산수박 생산조합은 지난 20일 첫 출하된 무등산 수박이 오는 10월까지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공동직판장’에서 판매된다. 북구 금곡동 산 일대 해발 300~500m 밭에서 재배하는 ‘무등산 수박’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9농가(3ha) 1800통이다. 가격은 8kg짜리 2만원, 16kg짜리 10만원, 20kg짜리 1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구입 희망자는 금곡마을 공동판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북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박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전북 농업기술원과

시협포를 운영하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과정, 재배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중·소과종 및 씨 없는 수박 등 품종개량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직판장을 통한 선별출하, 품질인증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무등산수박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은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무등산수박이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끝내고 대타협 협의기구 구성 대안 마련해야”

### 광주전남건강포럼 공공의료 강화 등 촉구

광주와 전남지역 보건·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전남건강포럼’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 협의기구 구성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강 대치를 끝내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23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전공의·전임의들이 진료 거부와 사직서 제출이 잇따랐으며 의과대학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 전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 복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은 이유로 일부 전공의를 고발하는 등 양측 대립이 격화되

고 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응급환자 사망사례까지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감과 의료계에 대한 반감, 단체 간 상호감정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신속한 합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정부는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중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분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건강포럼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결성한 단체로 2005년부터 지역의 건강 및 보건의료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여대 2학기 수업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

광주여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8월 31일부터 시작하는 2학기 수업을 2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한다. 광주여대는 30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주간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거나 비대면·대면 수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가 어려운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한적으로 소규모 대면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LMS 시스템 고도화, 라이브원격 스튜디오 신축, 동영상 수업 촬영장비 구입 등 개강 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자가격리 수칙 꼭 지키세요” 휴일인 30일 오후, 광주 북구가 운영 중인 자가격리관리 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격리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유노윤호와 함께 열정으로 뭉친 광주고 학생 밴드 ‘미르’를 소개합니다”

### 광주교육청 ‘스타발굴단’ 첫 주자 2일 유튜브 공개

“유노윤호(사진)와 함께 열정으로 뭉친 광주고 학생 밴드 ‘미르’를 소개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해 소개할 예정인 유노윤호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듬하여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유튜브 콘텐츠. 특히 지역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스타발굴단 학생들과 광주 출신 스타 연예인을 연결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타발굴단에서 소개할 첫 번째 주인공은 광주고 ‘미르 밴드’다. 음악적 열정과 재능을 보여 주고 있는 3학년 주권승(드럼)·이호진(일렉기타), 2학년 정장우(보컬)·김호건(베이스), 1학년 최광(키보드)·박은찬(일렉기타) 군을 소개한다.

광주 출신 연예인인 유노윤호가 미르 밴드의 소식을 듣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들과 함께 영상물을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광주고 ‘미르 밴드’와 유노윤호가 참여해 제작된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첫 편을 오는 9월2일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두서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 자신의 끼와 능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에 소개해 학생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